



2015 하반기  
**효원인 감동공유**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내 삶에 영향을 준 좋은 책을 추천함으로써, 친구, 선후배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 보세요!

- \* 참가 대상: 부산대학교 학부생
- \* 추천 대상: 모든 도서 (판타지, 만화, 선정적 도서, 무협지 등 제외)  
단, 기존 (2015년 상반기 포함) 우수 추천도서로 선정된 도서 제외 (추천도서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고)
- \* 응모 방법: 온라인 응모 (<http://reading.pusan.ac.kr>)  
부산대학교 '책 읽는 대학' - '책 이야기' - '함께 읽고 싶은 책' 응모 (비밀글 설정)
- \* 제출 양식: 첨부파일 이용, 분량 A4 용지 1~3매 (표지 제외)
- \* 모집 기간: 2015년 9월 1일 ~ 10월 31일
- \* 우수추천서 발표: 2015년 11월 중
- \* 우수추천서 선정: 50건, 도서상품권 1만원 지급 (1인당 최대 3건까지 추천 가능)
- \* 문 의: 부산대학교도서관 기획홍보팀 최민영 (Tel. 510-1810, [libplan@library.pusan.ac.kr](mailto:libplan@library.pusa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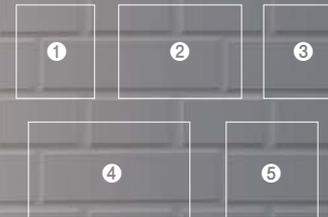


별 헤는 도서관 (개교 69주년 기념) 도서관 사진 공모전 우수작

똑똑,  
문을 열다

### COVER STORY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는  
개교69주년을 기념으로  
2015년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5월의 우리대학 도서관을 배경으로 한  
모든 내용의 사진”을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 30점을  
선정하였습니다.  
〈효원in도서관〉 제34호에 실린 사진은  
사진 공모전의 우수작 30점 중 일부로,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 ① 꿈의 비행  
김선호 (사학과, 12)
  - ② 휴식  
이연경 (에너지시스템전공, 13)
  - ③ 여름, 밤, 열정 그리고 도서관  
백영하 (정치외교학과, 11)
  - ④ 중앙, 그리고 하늘  
양은비 (신문방송학과, 14)
  - ⑤ 도서관 가자!  
조형민 (심리학과, 11)
- 표지 : 별 헤는 도서관  
양태원 (물리교육과, 12)

# 효원 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도서관소식지**

### CONTENTS

- 04 캠퍼스와 도서관의 역사 성숙의 시기로 발돋움하다
- 08 세계의 대학도서관 옥스퍼드대학 보들리언도서관
- 10 교수의 서재 내 연구실은 내 것이 아니다
- 12 아름다운 인터뷰 지식의 놀이터 가꾸는 숨은 일꾼  
도서관 근로장학생
- 14 도서관을 열어가는 사람들 전산지원팀
- 16 통계로 보는 도서관 2015년 신입생 도서관 이용교육 이수현황
- 18 즐기는 책세상 너와 함께 책 향기에 취하다
- 20 문화공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도서관 모바일 이용증
- 22 시선집중
- 23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김기혁 발행일 2015. 9. 30.  
편집 김미선, 박지영, 손성동, 최민영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1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whitemy37@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블로그(<http://lib.pusan.ac.kr/pnublog>)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 History of the campus and library

부산대학교도서관은 1946년 부산대학교 개교와 함께 설립되어, 예순 여덟 해가 흐르는 세월 동안 효원인 곁에서 묵묵히 성장해왔다. 우리 도서관이 걸어온 시간들을 되짚어 보는 '캠퍼스와 도서관의 역사'를 기획·연재하여 도서관의 소중한 기록들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 본문은 2009년 발간한 『부산대학교 도서관사 1946-2008』에서 주로 발췌·작성하였다.



연구도서관 기공식



법학도서관 개관식



완공된 연구도서관



의학도서관

# 성숙의 시기로 발돋움 하다

1994. 9. ~ 1998. 12.

### 전국 대학 중 첫 연구·학습도서관 이원화

부산대학교도서관은 1994년 9월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연구도서관과 학습도서관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다. 대학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전문 연구 자료를 이용하려는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들과 학습 과제를 및 교양독서를 주로 하는 학부과정 학생들로 구분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운영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시 중앙도서관을 학습도서관(現 제2도서관)으로, 1989년 착공하여 지상4층 연건평 2천평 규모로 신축한 도서관을 연구도서관(現 제1도서관)으로 이원화하였다. 연구

도서관에는 열람좌석을 줄이는 대신 전문적인 자료를 집중적으로 소장하고 훈련된 사서를 배치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반면 학습도서관은 교양·교재용 자료와 열람공간의 기능을 확대하고 세미나 공간, 휴식 공간, 자료보존공간을 확보하여 학부생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으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도서관의 운영은 연구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자료제공이라는 대학도서관의 기본역할 외에 학생들을 위한 학습 공간 제공이라는 도서관의 현실적인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대다수의 다른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 분관시대!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 개관

1996년 12월 16일 부산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4조 1항에 의해 법학관 3층에 129평 면적의 법학도서관을 개관하였다. 법학도서관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으로 법학 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의학도서관은 1955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설치됨에 따라 의·치대 구성원들의 연구지원을 위하여 1959년 10월 의과대학 분관 형태로 부산시 아미동 의과대학 캠퍼스에 설립되었다. 1981년 3월

도서관 의학분관으로 개칭되었고 이후 도서관 규모가 커짐에 따라 1996년 8월 부산대학교 의학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5년부터 의학도서관 전산화시스템(Medlib)을 통하여 도서관 소장 자료의 온라인 검색뿐 아니라 국내·외 의학 관련 전자저널 및 다양하고 유용한 학술DB 등 의학 관련 정보를 학내·외에서 자유롭게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구성원들의 연구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 UN 기탁도서관 지정

부산대학교도서관은 1998년 4월 UN본부로부터 UN에서 발행하는 공문서, 통계자료 등의 자료를

납본 받는 부분기탁도서관(Partial Depository Library)으로 지정되었다. 당시 국내에 5개 도서관(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이 UN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서울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점과, 부산대학교도서관이 국립대학으로서 Public Service를 할 의무와 의지가 있음을 표현한 결과 부분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후 2001년 1월 완전기탁도서관(Full Depository Library)으로 전환, 지정됨으로써 UN의 Fulltext DB인 Official Document System과 각종 조약집인 UNTC(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00만권 째 자료

**| 학술정보시스템 명칭 공모 당선작 |**

**안호영(최우수)**

**PULIP(풀잎)** :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nformation Plaza

한글로 '풀잎'이라 읽혀 그 이미지가 신선하며 발음하기 좋다.

**이용재(우수)**

**EAGLAS** : Eagle Library Automation System

부산대학교의 상징새(校鳥)는 독수리(Eagle)이다.

부산대학교도서관이 새벽별을 여는 정보광장에 독수리를 띄워보는 것은 어떨까?

**심볼마크 및 로고 당선작**



**100만권 장서를 위하여**

도서관의 장서수가 대학의 평가에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대상에 비해 부족한 장서를 확충하기 위하여 1998년 1월부터 '도서 100만권 확보 사업'을 추진하였다. 학교 및 국가경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수의 자료를 일시에 구입할 수 없으나 1998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도서관 장서 100만권 확보' 기간으로 정해 예산 확보와 더불어 분교 전 기관 및 교수, 교직원, 동문 등으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아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대학도서관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1998년 4월 11일 당시 100만권 확보사업에 따른 기증 도서 수는 28,431 권이고 총 장서수는 820,825권이였다. 1999년 4월말에 우리도서관 장서가 100만권을 넘었다. 100만권 째 자료는 조

선 세종 때의 성리학자 김종직(金宗直)선생의 문집인 '佔畢齋先生文集'으로 이 자료는 1999년 2월에 정년퇴임한 의과대학 이선경 명예교수가 기증한 것이였다.

**도서관 전산화의 획기적인 전환  
학술정보시스템 PULIP**

1989년 소장자료 DB구축을 시작으로 진행되어 온 전산화 사업은 1991년부터 도서관학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5년간 노력한 끝에 1996년 5월에 숙원 사업이던 도서관학술정보시스템(PULIP)이 탄생하게 되었다. 1996년 3월 우리대학 대학(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의 명칭을 공모하였으며, 1996년 4월에는 부산대학교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PULIP)

에 어울리는 로고디자인도 공모하였다. PULIP시스템의 가동은 그동안 편목과 열람 그리고 검색에 치중되어 오던 도서관 업무를 수서업무와 연속간행물업무까지 확대하여 업무 간 서로 연동되어 처리되는 토털시스템 환경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1996년 PULIP 가동과 더불어 구현한 홈페이지의 불편과 단점을 보완하고자 1998년 4월에는 내부 검토를 거쳐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을 시도하였다. 이용자들을 보다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Web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즉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대학의 학위논문 또는 세미나 자료에서부터 외국학술지의 원문까지 Web을 통한 검색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1989년에 PC 3대로 시작하였



검색용 PC 사용을 위해 줄서서 기다리는 이용자(1994)



훼손도서 전시회(1995)

던 도서관 전산화는 불과 10여년 만에 눈에 띄는 성장을 하였다.

**도서예약제, 이용교육, 지정도서...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

신속도서관의 건축으로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이용자군에 대한 대출규정이 논의되었다. 1995년에 교환교수, 교환학생, 수료후연구생 등 특수한 신분 가진 교내 이용자들에 대한 대출규정을 마련하였으며, 1996년 9월부터 대출권수가 학부생의 경우 2책에서 3책으로 늘어났다.

1998년 5월부터 대출중인 자료에 대해 '도서예약제'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도서관에 한 권씩만 소장되어 있고, 비

교적 장기대출이 많은 연구도서관 단행본 자료(외국서)에 한하여 적용하였다. 1998년 10월부터는 연체료와 훼손 및 분실자료에 대해 변상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미납도서의 경우 1일 1책당 1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하였으며 연체료 수입금은 기성회 예산으로 편입되어 이후 도서관입비 등 용도로 쓰이게 되었다.

1998년 3월 연구도서관 1층 로비에는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설치하였다. 도서관 입구에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간단한 질의에서부터 심층적인 정보검색에 대한 요구에 적절한 응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1998년 이후 도서관에서 해외학술DB의 구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진을 중심으로 전화문의응답, 일대일 교육 뿐만 아니라 학과나 도서관 등 원하는

장소에서 해외학술DB 검색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서관 소장자료가 방대해지고 전산화가 추진되어 소장목록, 학술DB 등의 이용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도서관 소장자료의 이용방법, 학술DB별 이용방법 등 다양한 안내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 이용자의 자료 활용을 지원하였다. 1998년 2학기부터는 매학기 개설되는 강의와 관련된 자료를 교수들의 신청을 받아 일반자료와 분리, 비치하여 학생들의 수강과목에 대한 이해와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지정도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도서관에서는 '부산대학교 간행물 전시회'(1994~1995), '훼손도서 전시회'(1995), '광복 50주년 기념 도서 전시회'(1995) 등 다양한 전시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107개의 도서관을 갖춘 책의 우주

## 옥스퍼드대학 보들리언도서관

지상의 위대한 도서관 최정태 지음 | 한길사 | 2011 | 351 p

부산대학교도서관 소장정보 제1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027 최73×A]  
나노생명과학도서관 4층 단행본실 [CM 027 최73×A]  
본 내용은 원본 도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원본 도서에는 나머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도서관으로 가득 찬 캠퍼스

대학에서 준 도서관 지도를 보니 캠퍼스가 온통 도서관으로 꽉 차 있다. 옥스퍼드에는 40개의 칼리지에 무려 107개의 대학도서관이 있다. 중세의 척박한 환경에서 800여년의 대학 역사를 오늘까지 이어오는 동안 이만큼 많은 도서관이 필요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곳 옥스퍼드대학에서만 5명의 국왕이 수학을 했고, 현재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포함하여 영국의 역대 총리 55명 중 26명을 배출했다. 나아가 지금까지 40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오스카 와일드를 비롯한 수많은 작가와 문호들이 이 문을 나왔다.

### 황소가 건너는 여울, 옥스퍼드

옥스퍼드대학은 템스 강(Thames R.)에 황소(ox)가 건너는 여울(ford)에서 이름을 따왔다. 옥스퍼드는 정확한 창립연대가 나와 있지 않다. 1167년 무렵 파리에서 온 영국인 학자와 학생들이 함께 대학을 세웠다고도 하고, 로마 엘프리드 왕이 몇 명의 그리스 철학자를 데리고 옥시나(Oxina)부근에 대학을 세웠다고도 하지만 모두 정설이 아니다. 그때만 해도 왕실이나 교황의 허락없이 대학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옥스퍼드는 출생기록이 없다. 다만 대학의 규율은 수도원같이 엄격히 지켰다. 수도사의 정신에 입각해 강의실이나 도서관을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검은 가운을 입어야 하고, 공식어인 라틴어를 사용해야만 했다. 초기에는 홀(Hall)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학업을 진행했다. 교수들은 고정된 건물도 시설도 없는 사설 숙박소나 기숙사에서 강의가 끝나면 수도사처럼 신을 위한 기도과 책을 읽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이렇게 홀에서 출발한 여러 개의 칼리지가 독립법인체로 정착되어 수세기를 거쳐오다가, 12세기 말 무렵 하나의 대학교(University)로 통합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의 옥스퍼드이다.

### 책의 도시, 음악의 도시, 건축의 도시

옥스퍼드는 1년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유럽 6대 문화 중심지로서 자랑할 게 너무 많다. 옥스퍼드영어사전(OED: Oxford

English Dictionary)은 40만 단어와 180만 용례를 수록하고 있어 ‘세계 최대’와 ‘표준 영어사전’이라는 명칭으로 수세기 동안 굳어져 통용되어 왔다. 1478년 창립한 옥스퍼드대학출판사(OUP: Oxford University Press)는 런던 다음가는 출판 중심지로 통하고, 옥스퍼드의 책(Oxford Books)은 이미 세계 책들의 대명사가 되었다. 또한 옥스퍼드는 음악의 도시다. 인구 15만 명의 조그마한 도시에는 대학 구성원들로만 이루어진 두 개의 오케스트라가 있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여러 형태의 실내악단과 합창단이 있다. 이곳 홀리웰 음악당을 찾은 관객들의 수준 역시 최고라 알려져 있다. 한번은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연주할 때였는데, 마침 오르간 연주자가 교통체증 때문에 도착하지 못했다. 결국 지휘자가 나와 관객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여기 어느 분이든 드보르자크의 「레퀴엠」을 연주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객석에서 금방 13명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 한다. 세상 어느 도시에 이만한 수준의 관객이 또 있을까. 다음으로 옥스퍼드는 건축의 진열장이다. 노르만 양식의 종교 건축물에서부터 포스트모던까지 좁은 도시공간에 영국건축사가 모두 담겨 있다. 그래서 고딕, 르네상스, 신 고딕, 조지왕 시대와 빅토리아여왕 시대의 양식 등 모든 시대의 건축사를 알고 싶다면 이곳을 찾아보라고 한다. 100여개 옥스퍼드대학도서관 건축물에서 옥스퍼드의 역사와 영국의 건축사를 모두 볼 수 있다고 한다.

### 저자의 영혼이 깃든 책을 만나다

옥스퍼드 내 100개가 넘는 도서관 중심에는 1602년에 설립된 보들리언 도서관이 당당히 버티고 있다. 독일의 작가 페터 사거(Peter Sager)가 보들리언을 직접 보고 쓴 책,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책의 우주’라고 표현할 정도니 그 규모와 장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간다. 장서가 1,100만 권이니 가히 책의 우주라고 할 만하다. 실제 사서들이 책의 수량보다 해마다 3.2킬로미터씩 늘어나는 서가가 현재 190킬로미터나 된다는 사실을 자랑으로 대신하는 것을 보니 세계 3대 대학도서관으로서 자존심을 잃지 않는 듯하다. 보들리언도서관과

T자형으로 맞닿아 있는 험프리공작도서관(Duke Humfrey's Library)은 1488년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 명품 중에 명품 도서관이다. 여기에 있는 책들은 적어도 1757년 까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사람들의 손이 자주 가는 대형 그림책이나, 큰 사전류, 그리고 학생들의 참고도서였다. 그 당시 책은 귀하고 값진 물품이었다. 장서목록도 없고 감독도 소홀했기에 학생들이 유혹을 못 이기고 몰래 훔쳐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책에 무거운 쇠사슬을 달아두었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충분치 못했다. 오래전부터 관습화된 전통 때문에 불쌍한 책들은 수세기 동안 어두침침한 서가 속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세월의 먼지를 한껏 머금고 있는 책들을 보면 책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영혼이 책과 함께 숨 쉬고 있는 것만 같다.

### 옥스퍼드의 상징 보들리언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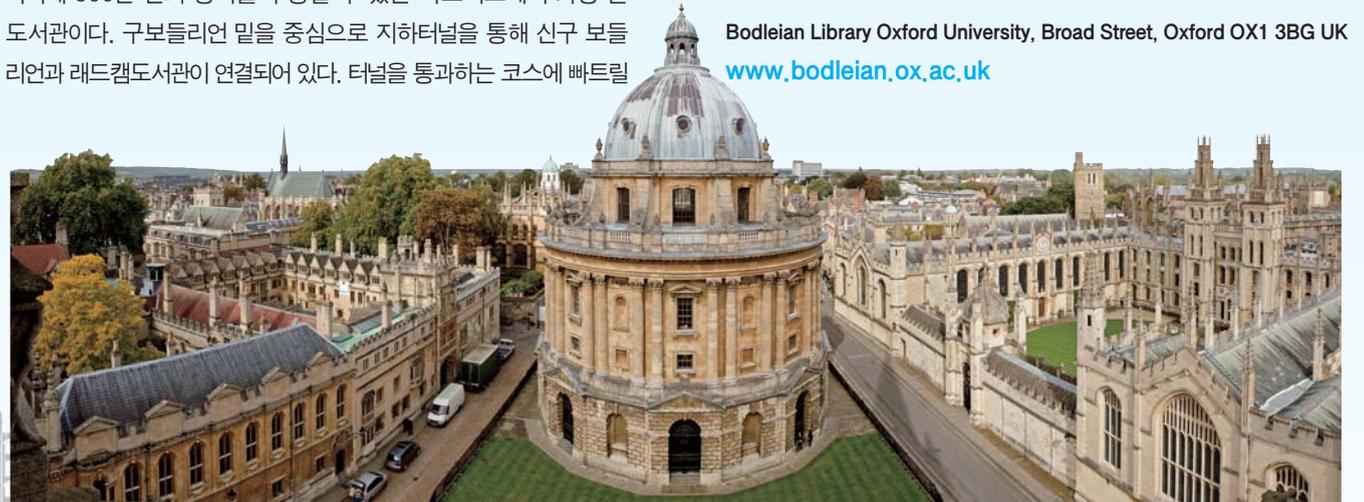
보들리언도서관은 법학도서관과 교육도서관, 사회과학도서관, 동양 연구소도서관, 일본학도서관, 중국학도서관, 아프리카 및 연방도서관 등 모두 15개의 부속도서관을 거느리고 있다. 여기서 영화 「해리포터」를 촬영했다고 한다. 자세히 살펴보니 예사스러운 곳이 아니다. 대영제국의 역사와 옥스퍼드의 영광을 적은 기록을 한 방에 가득 보관하고 있어 위대한 도서관이라는 말 이외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 같다. 보들리언도서관은 옥스퍼드의 랜드마크이다. 건물 전면은 마치 중세의 건축도안집을 펼쳐놓은 듯 후기 고딕양식 아치들로 가득 차 있다. 길게 솟은 아치형 창틀 장식은 4단으로 쌓아올린 고딕양식은 그보다 200년 앞서 지어진 신학부 건물과 멋진 대조를 이루고 있다. 보들리언 구도서관 길 건너편에 있는 신도서관은 연면적 2만 247평방미터에 500만 권의 장서를 수용할 수 있는 옥스퍼드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다. 구보들리언 밑을 중심으로 지하터널을 통해 신구 보들리언과 래드캠도서관이 연결되어 있다. 터널을 통과하는 코스에 빠트릴

수 없는 곳으로 보들리언지하도서관이 있다. 지하에 있는 단일 도서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한다. 이 지하도서관을 무대로 벌어지는 매튜 스킨턴의 판타지소설 『비밀의 책: 엔디미온 스프링』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하터널을 빠져나와 계단으로 올라가니 래드캠 원형 열람실이 눈앞에 나타난다. 영국의 베드로성당이라 불리는 이 도서관은 옥스퍼드대학의 상징으로서 홍보사진에 단골로 등장하는 명소이다.

### 책의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영국 국립도서관, 케임브리지대학도서관과 함께 영국의 3대 납본도서관으로 지정된 보들리언도서관. 책의 우주는 지금도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1610년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출판되는 모든 서적을 한권씩 납본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사람이 보들리언이다. 그의 힘으로 등장한 영국 최초의 납본도서관은 그 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집으로 장서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납본된 도서 6만 8,000권, 구입한 도서 2만 5,000권, 기증 및 교환 도서 9,000권으로 총 10만 2,000권의 책이 매년 보들리언으로 들어오는데, 이는 1714년 당시 소장하고 있던 옥스퍼드 전체 장서량의 2배에 달한다. 기원전 3세기 파피루스 원본을 비롯해 중세 필사본, 『구텐베르크 성서』는 오래전부터 귀중도서로 지정되었고, 초기 활판 인쇄물은 영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1840년 이후 발행된 영국 정부간행물을 네 번째로 소장한 도서관으로 기록되었고, 당대 옥스퍼드 교수들의 강의노트, 『돈키호테』 초판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등 유명 작가들의 육필원고와 활판 인쇄본, 심지어 최초의 전화번호부까지 수집되어 있다. 학교 안에 중국어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구입한 공자에 관한 전집은 중국에도 없는 희귀본이라고 하니 그 명성을 알 만하다.

Bodleian Library Oxford University, Broad Street, Oxford OX1 3BG UK  
[www.bodleian.ox.ac.uk](http://www.bodleian.ox.ac.uk)



# 내 연구실은 내 것이 아니다

“

어쩌면 공부한다는 건 세상에 자기 자리를 두지 않게 되는 것, 아무 것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책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고 서로에게 넘쳐흐르는 게 아닐까 싶다.

”

내 연구실... 책이 꽤 많은 편이다. “이거, 다 읽으신 거예요?” 와 본 사람들이 그렇게 묻곤 한다. 대답은 당연히, 아니올시다이다. 설마,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읽었겠나. 게다가 날이 갈수록 책이 늘어나니 다 읽어치우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간다. 그러면서도 계속 책을 산다. 책을 별로 읽지 않아도 드물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더러 있더라만, 내 경우는 아직은 상당 부분 책에 의존해 사는 한심한 처지라 우선 그러하고,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이 방에 오는 다른 이에게 소용이 닿을 가능성이 있기에 그러하며, 읽는 행위는 읽지 못한 또는 읽지 않은 것들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나름대로의 깨침 때문에도 그러하다.

물론, 공부하는 대개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읽어야 할 책을 읽지 못하거나 읽지 않은 채 쌓아두고 있는 것에 적잖이 심적 부담을 느꼈더랬다. 하고 싶은 공부 하는 것이 직업인 것 자체가 고맙고 황송하기까지 한 일인데,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 어쩐지 죄책감도 느껴졌었다. 그런가 하면, 기껏 읽어놓고서도 도대체 남은 게 없는 것 같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혹은 논문을 쓰면서 읽은 것의 반의 반의 반도 활용하지 못할 때는 나의 무능을 한탄하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책을, 내가 읽는 무엇이라기보다는 나와 특이한 방식으로 만나는 일종의 흐름으로 느끼게 되면서 훨씬 자유롭고 스스로에게도 넉넉해졌다. 내가 읽은 것이 내게 양분이 되고 위안이 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내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일단 책 안에는 저자의 것만은 아닌 그 동안의 세상의 고민과 꿈이 담겨 있고 그런 것들이 전해 주는 이야기가 마침 내게도 다가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나의 것으로 가두기보다는 또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해 보였고, 그렇게 만나고 다시 흐르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내 몸에 각인되고 어떤 것은 그저 스쳐지나가고 어떤 것은 먼 바람으로 주위

에 잠시만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읽었으되 흘러지나가 버린 것 같은 책들과 아직 읽지 못한 책들과 어쩌면 앞으로도 읽지 않을 책들이 있기에 읽은 책도 존재한 것이고 읽은 것이 된다는 점이다. 요컨대 어떤 것도 쓸모없지는 않고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니라는, 뭐든 다 괜찮다는 태연자약한 마음이 거의 확신이 되어 간다. 무언가 생산된 것은 손에 잡히는 것들, 드러나는 것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잊혀진 것들에 신세를 졌다는 게 내 깨침이고, 모든 곳에서 그렇게 모든 시간이, 우주 전체가 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게 책들 속에서 동시에 책 밖에서 내가 발견한 신비이다.

연구실도 마찬가지이다. 문쪽에 내 이름이 붙어 있는, 내게 배정된 공간이지만 내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개별 연구실을 포함해서 모든 곳이 누구의 것도 아닌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애초에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연구실은 상업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동등한 존재로 환대받아야 하는 공간이다. 교수들도 엄청 바쁜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버린 세상이고 실제로도 할 일이 적진 않지만 대학에서 내 것이라고만 할 수 없는 방에 제한 없이 머무르며 지내는 사람이라면 찾아오는 이를 언제나 소중히 여기고 친구로 대우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가 아닌가 싶다. 어쩌면 공부한다는 건 세상에 자기 자리를 두지 않게 되는 것, 아무 것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책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고 서로에게 넘쳐흐르는 게 아닐까 싶다.

연구실 창밖으로 때때로 하늘과 나무를 보면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고 작업을 하노라면 문득 문득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은 물론이다. 어디서 또 이런 풍경을 마주할까 싶어 감동스럽



고, 때문에 건너편에 신축한 건물도 거뜬히 용서가 된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특히 밤이나 휴일에 올 곳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문제가 됐던 상황 자체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어도 연구실 품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만으로 치유가 되고 기운이 났던 경험이 여러 번이다. 내가 꼼꼼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이 방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아프고 못난 현재의 모습이 내 전부가 아님을 확인받는 느낌이다. 책, 책상, 의자, 화분, 그림, 찻잔, 여기 왔었던 사람들의 흔적과 기억, 내가 쉰 한숨과 터뜨렸던 웃음 등 이 방 안의

모든 것들과, 모든 시간을 품은 창밖 나무, 모든 색채의 하늘, 셔틀버스가 섰다 떠나는 소리, 화단에서 쉬거나 놀고 있을 고양이들 등 이 방 주변의 것들이 서로 지켜보고 기다려 주고 있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모든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이기적으로 누리면서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어야 하는데 하고 매번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세상이 억울해서 종종 입술을 깨문다.

그러니 당연히 이 방의 책들은 누구나 빌려갈 수 있다. 그 중 어떤 책은 가져간 이의 이름은 수첩

에 있는데 영영 돌아오지 않기도 한다. 엇갈린 인연과 숙절없는 그리움이 수첩에서 배어나오는 것이 견디기 힘들어, 요즘은 딱히 다시 보지 않을 것 같은 책은 이 방에 들르는 사람 누구든 가져가십사 표시해 두고, 인기가 없어 누가 집어가지 않은 책들은 도서관에 그때그때 기증한다. 여전히 먹먹해 하지만 좀 더 많은 것을 기꺼이 떠나보내는 것이, 내 것이 아닌 방에 머물고 있는 자가 그나마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것도 같다.

# 지식의 놀이터 가꾸는 숨은 일꾼 도서관 근로장학생

성실한 노력의 대가를 받으며 다양한 경험과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근로장학생! 근로장학생은 우리 도서관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원이다. 도서관에서는 매 학기 근로장학생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업무의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높은 책임감과 서비스 정신을 필요로 하는 도서관 근로장학생은 회원인의 공동 자산인 도서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도서관 각 부서에서 열심히 활동(자료등록, 대출반납, 자료 정배열)하는 있는 근로장학생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들어 보았다.

**Q.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근로 업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병규** 정보서비스팀 도서반납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도서 반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위치가 도서관 입구에 있어서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에 관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저는 지금 제1도서관 3층 인문사회 단행본 팀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하는 일 중 가장 주된 일은 반납된 도서들을 옮겨 원래 자리에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정배열 즉, 책이 원래 자리에 놓여있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환경정비를 합니다.

**진용** 저는 도서관 자료개발팀에서 장비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작업이란 도서관에 새로 구입되거나 기증된 자료를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등록번호 넘버링, 감응테이프 부착, 장서인 날인, 바코드 부착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Q. 도서관 근로장학생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규** 제일 큰 장점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전공과 연령대의 사람들

이 모이다보니 도서관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근로가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서 선생님들과도 한 번씩 회식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찾자면 한 번씩 책을 많이 옮길 일이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책이 무거운 게 많다보니 힘듭니다. 이땐 책을 봐도 책이 아니라 그냥 종이로 된 벽들로 보입니다.

**현지** 도서관 근로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근로에 비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근로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해진 스케줄에 맞게 근로를 해야 했는데 도서관 근로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와서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도서관에 계속 있다 보니 책과 가까워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단점은 책을 꽃으러 돌아다니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이 든다는 점입니다. 장시간 근로를 하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진용** 도서관 근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근무시간의 조정이 용이하고, 학교생활 중에 필요한 책이나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책들의 유무 파악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6명에서 8명 정도의

근로학생들이 같이 근무하므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할 때 비교적 수월하게 행할 수 있었으며, 도서관으로 새로이 들어오는 책들이 모두 거쳐 가는 곳이므로 전공 관련하여 필요한 책이나 흥미를 이끄는 책들이 유입되었는지 저절로 파악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독립된 공간에서 큰 불편함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 시간을 보내는 데에 불만이나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단점을 꼽자면, 도서관에서 근로 생활 중 불편한 점은 없었으나 단지 제1도서관의 위치가 학교에서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점심시간이나 이동시간이 조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Q. 도서관에서 근로하면서 생겼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 가지 소개해 주세요.**

**병규** 저는 도서관에서 3년이 좀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장난으로 “너는 도서관에 취업한 것 같다.”고 했는데, 이 말이 와전돼서 진짜 제가 도서관에 취업한 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서관 이용에 관한 질문과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냐는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현지** 책을 꽃다 보면 가끔씩 원래 자리에 배열되어있지 않은 책들을 발견합니다. 어느날 책을

꽃고 있는데 여러권의 책이 쌓여있었습니다. 속으로 누가 책을 여기서 이렇게 놔뒀냐며 투덜투덜 대면서 원래 자리에 꽃고 있었습니다. 책을 다 꽃고 속으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오셔서 “혹시 여기 있던 책들 다 꽃으신건가요?”라고..... 그 때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실은 그분이 그 책들을 그렇게 쌓아둔 것이었습니다. 책 빌리실 거면 자리에 가져가 주세요ㅠㅠ 아니면 저희는 원래 자리에 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용** 도서를 장비 작업하기 위해서는 도서가 진열된 선반에서 이동식 북트럭으로 책을 옮긴 후 작업을 하는데, 제가 한 파트의 책을 옮겨 담고 그것을 같이 일하는 친구와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막바지에 이르러 저는 수업시간이 되어 가게 되었고, 그 이후 다음날 와보니 제가 책을 옮겨 담을 때 일부분을 빠뜨리고 안 담게 되어 거의 마무리한 작업 도서의 바코드와 스티커 등이 순서에 맞지 않아 일일이 제거하고 다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작업했던 친구는 괜찮다고 했지만, 너무 미안하고 당황스러워서 한동안 괜히 멧쩍은 웃음을 짓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Q.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기 전과 근무한 후 도서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병규** 제가 모르는 서비스가 정말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이나 저자와의 만남 같은 행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도서관에서 일하다보니 이런 좋은 행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건 학술 DB였는데, 수업 과제를 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보다 훨씬 찾기 쉽고, 고급 정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면서 이런 행사나 이용 교육 등에 참여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현지** 도서관에서 근로를 하면서 ‘이런 분야의 책도 있어?’할 정도의 다양한 분야의 책이 학교 도서관 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용** 도서관에는 학생들의 수업이나 공부에 관련된 책들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냈었는데, 직접 근로하면서 도서관에 자주 가고 책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소설부터 시작해서 잡지, 수필, 고서, 예술 등 여러 분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책들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

니다. 이 점에서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지식들의 스펙트럼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Q. 끝으로 도서관에 하고 싶은 말이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병규** 반납데스크에 있다 보니 훼손되거나 더럽혀진 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책인 만큼 깔끔하게 보고 반납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반 학기였지만 도서관에서 근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딱딱할 것 같았는데 그와는 반대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쾌적하고 유용한 도서관을 만들어주세요~

**진용** 교육과 학문의 방향은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까지 역사를 따라 이것저것 변해가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랬듯이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기록물들을 보존하는 도서관은 언제나 꽃같이 제자리를 항상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전산지원팀, 우리가 원하는 정보의 바다 만들기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정보자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장애를 발빠르게 처리하는 팀이 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도서관 시스템의 관리·운영과 이용자서비스를 위한 각종 솔루션을 관리하는 슈퍼맨 같은 그들, 도서관의 전산지원팀을 만나보자.

### 01 전산지원팀은?

전산지원팀은 부산대학교도서관 전산의 운영과 관리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팀이다. 부산대학교도서관은 1991년 5월 전산화 작업을 시작으로, 1996년 학술정보시스템인 '풀잎(PULIP)'을 가동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Vintage Las'를 시작으로 2006년 10월 XML 기반의 'XMLAS', 2010년 8월 Web 2.0 개념을 도입한 'Solars7'과 'PYXIS'를 도입, 이용자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대학의 연구·학습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대학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구축중인 정보자원을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과 최적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02 도서관의 얼굴! 홈페이지 구축·관리

도서관 홈페이지는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전산지원팀의 중

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 메인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법학, 의생명과학도서관(양산), 나노생명과학도서관(밀양)의 3개의 분관 특성에 맞춘 홈페이지와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구축부터 수시로 발생하는 장애조치까지 홈페이지와 관련한 모든 작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수집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2~3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더 나은 홈페이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03 도서관의 두뇌! 각종 시스템과 솔루션 관리·운영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얼굴'에 비유한다면 '두뇌'에 비유할 수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들이 도서관에는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유지되고 있다. 전산지원팀은 이렇게 다양한 도서관 시스템의 관리·운영은 물론, 대학내의 학사·인사정보 등 각종 시스템과의 연동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서버 및 각종 솔루션 관리

홈페이지, 주전산기, dCollection, 원문, PubMed, 스마트카드, 교외접속, 좌석관리, SCI, eBook, 가상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관리·지원하는 서버들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전산화 이후 이용자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추가 도입되고 있으며 현재 12개의 서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용자 정보와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한 'DB암호화솔루션'을 비롯하여, 이용자들의 PC 장애를 원격 접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격솔루션', 모바일기기에 최적화된 모바일학생증, 키오스크로 신문을 보는 전자신문 이외에도 교외접속, PDF 자동변환 등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각종 솔루션을 관리하고 있다.

#### 도서관자동화시스템 관리

도서관 자료와 이용자 관리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업무관리 시스템이다. 구입/기증자료의 등록부터 등록자료의 조회, 검색과 콘텐츠 관리 등과 같은 자료 관리부터 이용자 정보의 등록, 갱신

같은 이용자 관리를 비롯하여 시스템의 보안, 각종 이용통계까지 도서관 모든 분야의 자동화를 관장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대학교도서관은 INEK사의 'Solars7'을 사용하고 있다. 전산지원팀은 업무와 이용자서비스를 위해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이나 사용 중 발생하는 각종 장애를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현장의 각종 기자재 관리

전산기기의 발달로 도서관에서는 업무용 외에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산기기와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도서관 DB검색, 교육 및 인터넷 이용 등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컴퓨터와 이용자용 프린트기, 스캐너 등 각종 장비의 설치와 수시로 발생하는 장애조치를

비롯하여 이용자 관리와 편의 목적의 자동대출기/반납기, 좌석배정기, 출입관리시스템 등 시스템과 연동된 각종 기기의 설치 및 업데이트 등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전산기기와 시스템의 최적화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 04 학술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서관에서는 매년 졸업하는 석·박사 학위논문은 물론 과거의 졸업논문까지 원문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교내·외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dCollection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문구축과 dCollection 시스템의 관리를 전산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4년부터 학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연구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서비스

를 위해 '대학생산학술자료통합관리시스템'인 기관리포지터리(IR) 사업을 2018년 완료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대학은 교수들의 연구실적 평가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논문을 생산한 연구자들은 자신의 논문의 확인 및 오류점검을, 이용자들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산지원팀은 도서관 현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시스템에 대한 도서관 내부의 개선 요구와 이용자들의 요구를 검토하여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반영·개선하고 있으며 담당자들은 전문적 지식 습득과 시대의 변화를 파악·분석하여 최상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2015년도 신입생 도서관 이용교육, 얼마나 많은 학생이 들었나요?

## 2015 신입생 도서관 이용교육 이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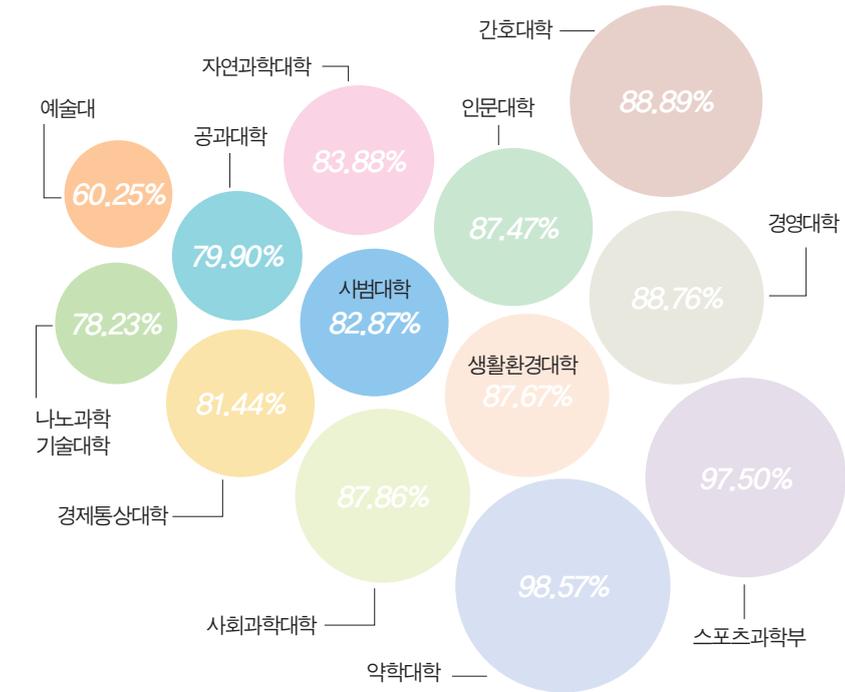
2015학년도 1학기에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학부 신입생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학기(2015년 9월)부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부분적인 조치(도서대출 및 열람실 좌석 배정 제한)를 시행하였으며, 각 학과의 협조아래 단과대학별로 도서관 이용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적으로 운영한 2015년 1학기, 얼마나 많은 신입생들이 도서관 이용교육을 이수했을까?

2015학년도 1학기의 신입생 이용교육은 3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11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학기 중 미이수자를 위해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27회의 추가교육을 실시하였다. 2015학년도 학부 신입생은 총 4,365명이며, 이 중 도서관 이용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3,580명으로 82.02%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단과대학별로 신입생 도서관 이용교육 이수율을 살펴본 결과, 약학대학이 98.57%로 가장 높은 이수율을 보였고, 예술대학의 이수율이 60.25%로 가장 낮았다.

단과대학(학과수)	신입생수	이수자수	이수율	미이수자수
전체	4,365	3,580	82.02%	785(17.98%)
인문대학(12)	439	384	87.47%	55
사회과학대학(7)	313	275	87.86%	38
자연과학대학(10)	546	458	83.88%	88
공과대학(11)	1378	1101	79.90%	277
사범대학(17)	362	300	82.87%	62
경영대학(1)	249	221	88.76%	28
경제통상대학(5)	291	237	81.44%	53
생활환경대학(4)	146	128	87.67%	19
예술대학(7)	317	191	60.25%	126
스포츠과학부(1)	40	39	97.50%	1
나노과학기술대학(3)	124	97	78.23%	27
간호대학	90	80	88.89%	10
약학대학	70	69	98.57%	1

신입생 도서관 이용교육 이수 통계 (2015. 9. 16. 기준) \* 분관의 도서관 이용교육은 별도로 진행함

## 2015학년도 신입생 도서관 이용교육 이수율 (단과대학별, 이수자수/신입생수)



2015년 처음으로 실시된 학부 신입생 도서관 이용교육의 의무적 이수는 신입생의 학습 의욕 고취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도서관의 이용 방법 및 주제별 자료 소장 위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자료 검색법 및 도서관의 기본적인 서비스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도서관 정보활용 교육을 통해 정보센터이자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으며, 단과대학별로 실시한 이번 신입생 도서관 이용교육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도서관 정보활용 교육 안내

도서관에서는 학생 및 교내 연구진을 대상으로 매학기 정보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2015학년도 2학기의 교육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도 학술DB교육 등 다양한 이용교육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 | 정기교육 |

#### 학부생

2015. 9. 7. ~ 11. 30. 매주 월요일 17:00 ~ 17:50  
리포트 작성을 위한 정보탐색법, 참고문헌 관리도구(RefWorks) 활용법, 도서관 서비스(문헌복사, 상호대차) 등

#### 대학원생 및 연구진

2015. 9. 11. ~ 11. 27. 매주 금요일 10:00 ~ 11:30  
국내·외 학위논문 원문 검색법, 학술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전자책 검색법, 참고문헌 관리도구(RefWorks, ProQuest Flow) 활용법, 타기관 자료 이용 및 자료제공 서비스(문헌복사, 상호대차) 등

- 신청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pusan.ac.kr>) → 이용자서비스 → 도서관 이용교육 → 정기교육/학술DB교육
- 정기교육은 신청자가 5명 이상일 때 실시하며, 세부 교육일정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 맞춤교육 |

- 정기교육 외에 희망학과를 대상으로 도서관 정보활용 교육 실시



2015 상반기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 너와 함께 책 향기에 취하다

2015 상반기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도서를 소개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효원인 추천도서와 함께  
책 향기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 총류

이 책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숨어 있다. 글쓴이는 여덟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인문학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가만히 들려주고, 끊임없이 “행복”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글쓴이의 따뜻한 마음씨가 이 책을 읽는 내내 전해진다.  
문동민(통계학과)

밤은 책이다 이동진 | 위즈덤하우스 | 2011  
여덟단어 박용현 | 북하우스 | 2013  
우주 또 하나의 컴퓨터 톱 지그프리트 | 김영사 | 2003  
위험한 생각들 존 브룩만 | 갈라온 | 2007

김민지(미생물학과)  
문동민(통계학과)  
최준혁(전기컴퓨터공학부)  
한가은(광매카트론닉스공학부)



## 철학

당신에게 3달, 아니 90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저자의 말처럼 죽음은 그리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일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김수현(일어일문학과)

매달리지 않는 삶의 즐거움 아가피 스타사노폴로스 | 티즈맵 | 2012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 오즈 슈이치 | 21세기북스 | 2010

박상욱(약학부/제약학전공)  
김수현(일어일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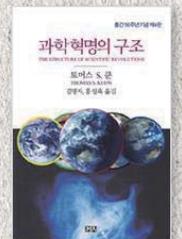


## 어학

실로 국제화의 시대에 맞서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현재의 우리들이다. 이 책을 통해 언어공부에 대한 의구심과 학습방향 설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간절히 소원한다.  
허윤석(경영학부/금융공학전공)

영어 모국어화 훈련법 최재화 | 헤이바디 | 2012

허윤석(경영학부/금융공학전공)



## 기술과학

우리가 배우는 그 무수한 과학 지식들은 과연 의심해 볼 여지 없는 진리인가? 쿤의 책을 읽으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과학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호기심이 다시 되살아남을 느꼈다.  
이리나(정보컴퓨터공학부)

과학 혁명의 구조 토머스 S. 쿤 | 까치글방 | 2013  
만물의 죽음 오버라 히데오 | 아카데미서적 | 1997  
해성 : 칼 세이건의 우주여행 칼 세이건 | 해냄 | 2003

이리나(정보컴퓨터공학부)  
이리나(정보컴퓨터공학부)  
박경옥(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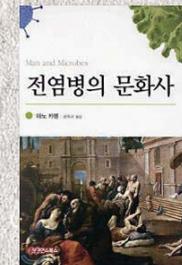


## 사회과학

행복의 비밀에는 허버드대를 졸업한 수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생에 대해 어떤 것을 1순위로 둘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로미(경영학과)

도시의 승리 에드워드 글레이저 | 해냄 | 2011  
수녀원 스캔들 주디스 브라운 | 푸른역사 | 2011  
아반적 불평등 조너선 코콜 | 문예출판사 | 2010  
왜 모두 미국에서 탄생했을까 이케다 준이치 | 메디치 | 2013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연호 | 오마이북 | 2014  
행복의 비밀 조지 베일런트 | 21세기북스 | 2013

이영우(기계공학부)  
황세봉(사학과)  
박경옥(사학과)  
김근희(중어중문학과)  
박정우(역사교육과)  
이로미(경영학과)



## 자연과학

전염병은 우리 역사와 함께 하며, 질병에도 역사성이 있다. 우리 인류의 진화는 질병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이루었으며, 삶의 질이 향상됨과 동시에 많은 질병들이 동시에 생겨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재혁(약학부/제약학전공)

스마트 동의보감 백태선 | 글과생각 | 2014  
전염병의 문화사 아노 카렌 | 사이언스북스 | 2001

김구원(pre-한의학전문대학원과정)  
이재혁(약학부/제약학전공)



## 예술

이 책은 역사를 소재로 한 미술품의 시대적 변천을 다룬 책이자, 미술 작품 속에서 당대의 역사를 읽어내는 책이기도 하다. 역사화를 통해 시대에 따라 역사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역사 관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의 모습도 읽어내고 있다.  
박경옥(사학과)

알렉스 퍼거슨 나의 이야기 알렉스 퍼거슨 | 문학사상 | 2014  
역사의 미술관 이주현 | 문학동네 | 2011

송창윤(사학과)  
박경옥(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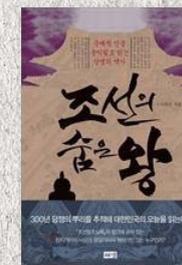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는 2015년 4월 22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부산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공모하여, 우수 추천서 5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수 추천서 원본은 '책 읽는 대학 홈페이지(<http://reading.pusan.ac.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학

허균의 삶은 고작 반백년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을 향유하고, 세상을 자기감정대로 느낀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  
박정우(역사교육과)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안톤 베블로비치 체호프 | 문학동네 | 2010  
나는 나의 법을 따르겠다 허균 | 돌베개 | 2012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 이성과 힘 | 2000  
노트르담의 꼽추 빅토르 위고 | 신원문화사 | 2004  
디어리야 엘리스 먼로 | 문학동네 | 2013  
몰락하는 자 토마스 베른하르트 | 문학동네 | 2011  
밤으로의 긴 여로 유진 오닐 | 시공사 | 2011  
비블리아 고서당 사건수첩 미카미 엔 | 디앤씨미디어 | 201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노희경 | 북로그컴퍼니 | 2010  
소녀미나토 가나에 | 은행나무 | 2010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하야마미리 | 예담 | 2012  
슬픈 짐승 모니카 마론 | 문학동네 | 2010  
신의 로직, 인간의 매직 니시자와 야스히코 | 한스미디어 | 2014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파트릭 모디아노 | 문학동네 | 2010  
아디스나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신경숙 | 문학동네 | 2010  
어린왕자 생텍쥐페리 | 문학동네 | 2007  
이피게네아 스텔라 요한 볼프강 폰 괴테 | 민음사 | 1999  
임꺽정 길 위에서 펼쳐지는 마이 나그의 향연 고미숙 | 사계절 | 2009  
자전거 소년 가다케우치 마코토 | 비채 | 2007  
장미의 이름 (전2권) 움베르토 에코 | 열린책들 | 2009  
프랑켄슈타인 : 현대의 프롤레타루스 메리 W 셸리 | 열린책들 | 2011



## 역사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 다큐멘터리식 역사소설인 이 책은 송익필이라는 인물을 통해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당쟁의 시작점을 짚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영우(기계공학부)

독일인 부부의 한국 신혼여행 1904 루돌프 차펠 | 삼민출판사 | 2009  
돈황의 역사와 문화 나가사와 카츠토시 | 사계절 | 2010  
루스 베네딕트의 그림으로 읽는 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 | 봄봄 | 2010  
삼국지, 역사를 가다 남덕현 | 현자의 마을 | 2014  
역사란 무엇인가 에드워드 H. 카 | 까치 | 2015  
조선의 숨은 왕 이한우 | 해냄 | 2010  
조조 평전 장쥘리오 | 민음사 | 2010

김수현(일어일문학과)  
황세봉(사학과)  
강민우(정보컴퓨터공학부)  
김근희(중어중문학과)  
강민정(역사교육과)  
이영우(기계공학부)  
이영우(기계공학부)



##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미 없는 일이긴 하지만,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가요? 과연 과거에서의 새로운 결정은 나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다줄까요? 이번호에서는 시간여행을 떠난 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영화는 제1·2도서관 1층 iCOMMONS 내 미디어룸에서 언제든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타임 패러독스

**개요** SF/스릴러 | 97분 | 2015.1.  
**감독** 마이클 스피어리그, 피터 스피어리그  
**출연** 에단 호크, 노아 테일보(Mr.로버스트 역), 시라 스누크, 마들린 웨스트(Mrs.스테이플튼 역) 등  
**내용** 폭파범, 요원, 의문의 남자, 그리고 존&제인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다”  
**한줄평** 모든 결과는 원인이, 모든 원인은 다시 결과가 (김지미 씨네21 기자)



### 소스 코드

**개요** SF/액션 | 93분 | 2011.5.  
**감독** 더간 존스  
**출연** 제이크 질렌할(컬터 스티븐스 역), 미셸 모나한(크리스타 워렌 역) 등  
**내용** 도시를 위협하는 열차 폭탄 테러 사건 해결을 위해 호출된 콜터 대위. 주어진 시간 단 8분, 과거에 접속해 미제를 구하라!  
**한줄평** 8분을 8초처럼 쓸 줄도 알고 80분처럼 쓸 줄도 안다 (이동진 씨네21 기자)

###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개요** 애니메이션 | 97분 | 2007.6.  
**감독** 호소다 마모루  
**출연** 나카 리이사(코노 마코토 목소리 역), 이시다 타쿠야(미미야 치아키 목소리 역) 등  
**내용** 타임리프로 매일매일 정이빛 인생을 사는 마코토의 비밀 이야기와 지키고 싶었던 친구들과의 우정  
**한줄평** 삶을 연장하는 편편 (김혜리 씨네21 기자)



### 이프 온리

**개요** 멜로/로맨스 | 96분 | 2004.10.  
**감독** 길정거  
**출연** 니퍼 러브 휴잇(사만다 역), 폴 니콜스(이안 역) 등  
**내용** 거짓말처럼 그녀가 내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의 기회가 주어진다... 가을만큼 가슴사린 최고의 감성 로맨스  
**한줄평**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 그래, 그냥 사랑할지이다 (ToTo Daum 영화평론가)

### 말할 수 없는 비밀

**개요** 멜로/판타지 | 101분 | 2008.1.  
**감독** 주걸륜  
**출연** 주걸륜(상륜 역), 계륜미(샤오위 역), 황추생(상륜 아버지 역) 등  
**내용** 나는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하니? 신비스러운 피아노 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춘의 아름다운 나날들  
**한줄평** 첫사랑의 감성으로 돌아가는 로맨틱한 순간 (이혜미 씨네21 기자)



###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개요** SF/모험 | 134분 | 2014.5.  
**감독** 브라이언 싱어  
**출연** 휴 잭맨(울버린 역), 제임스 맥어보이(찰스 제비에 역), 마이클 패스벤더(에릭 렌서 역) 등  
**내용** 인류를 위협하는 '센티넬'로 인해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미래, 과거로 돌아간 울버린과 엑스맨들의 가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한줄평** SF의 외피를 쓴 밀실 스릴러 (이은선 매거진M 기자)

### 그 외 시간여행을 다룬 영화

장르 | 러닝타임 | 개봉년월 | 감독

#### 나비효과

SF/스릴러 | 113분 | 2004.11. | 에릭 브레스

#### 어바웃 타임

멜로/로맨스 | 123분 | 2013.12. | 리처드 커티스

####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판타지 | 141분 | 2004.7. | 알폰소 쿠아론

#### 열한시

스릴러 | 99분 | 2013.11. | 김현석

# 보안기능을 강화한 앱(APP) 방식 도서관 모바일 이용증

새로운 도서관 모바일 이용증을 만나보세요!  
시/분 단위로 매번 다른 OTP 보안 코드 생성으로 부정사용 및 모바일 이용증 돌려쓰기를 방지합니다.

단순 이미지 방식으로 이미지 캡처 및 부정사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던 그동안의 모바일 이용증을 교체하였습니다. 2015년 8월에 교체가 진행된 이번 도서관 모바일 이용증은 '학번+차수+OTP보안코드'로 모바일ID가 구성되며, 이용자DB에 등록된 핸드폰번호와 연동하여 1대당 1개의 학생증만 지원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 사용자는 Play 스토어에서, 그리고 애플 iOS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부산대 이용증'을 검색하고,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애플

###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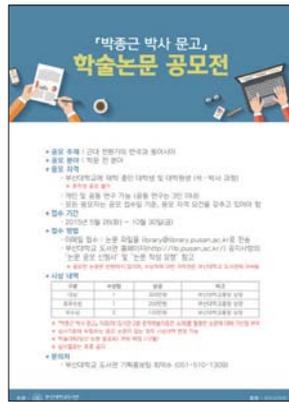
도서관에서는 모바일 환경변화에 맞춰 앞으로도 모바일 앱을 계속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용 중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댓글남기기를 통해 의견을 주세요.

문의 | 도서관 전산지원팀 051-510-1817



## 시선집중 Special Focus

### <박종근 박사 문고> 학술논문 공모전 안내



도서관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술 정보 교류 및 지원을 위하여 『박종근 박사 문고』 학술 논문 공모전을 진행한다. '근대 전환기의 한국과 동아시아'를 주제로 하여 학문 전 분야에 걸친 논문을 공모하며,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박사과정)이면 누구든 응모가 가능하다.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에 소장중인 「박종근 박사 문고」를 활용한 논문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며, 대상 1팀에는 300만원, 최우수상 1팀에는 200만원, 우수상 2팀에는 100만원의 상금과 함께 모든 수상팀에 부산대학교총장 상장을 수여한다. 10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논문공모전의 접수방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309

### 도서관 통계연보 제5호 발간

2014년 도서관의 주요 업무 및 통계현황 등을 수록한 도서관 통계연보 제5호가 발간되었다. 통계연보 제5호에는 2013년과 2014년에 걸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함께 도서관 이용과 자료 현황 등의 최근 5년간의 통계자료를 수록하고 있어, 부산대학교도서관에 관련된 각종 현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예산, 장서, 정리, 이용, 서비스, 시설, 직원 등으로 구분한 통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하여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309

### 박사 이우성 선생 장서 3천여 권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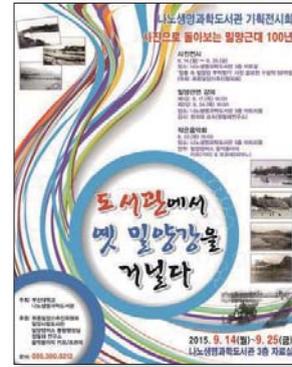
한국 고전학·역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박사(韓史) 이우성(91·사진) 선생이 후학 양성을 위해 평생 아껴온 장서 3,140권을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했다. 기증된 도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자료를 비롯해 근대 전환기 지역의 전통 지식인들이 사상적 갱신과 학문적 실천에 활용했던 자료들도 있어 향후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우성 선생은 “후학들이 인문정신과 고전연구를 되살리는 밑거름으로 삼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료를 기증했다”고 말했다.

이에 도서관에서는 오는 10월 밀양캠퍼스의 나노생명과학도서관에 이우성 선생이 태어난 고가의 이름을 딴 ‘쌍매당문고(雙梅堂文庫)를 설치하고, 학생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 나노생명과학도서관 055-350-5211, 도서관 고문헌자료실 051-510-1824

### 사진으로 돌아보는 밀양근대 100년, “도서관에서 옛 밀양강을 거닐다”



밀양캠퍼스 나노생명과학도서관에서는 “사진으로 돌아보는 밀양근대 100년”을 주제로 기획전시회를 개최했다.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에서 주최한 ‘장롱 속 밀양강 추억 찾기’ 사진 공모전 수상작 50여점을 전시하여 밀양의 역사를 알리고자 하였다. 또한,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정석태 교수의 밀양 관련 강의와 음악동아리 카포(기타)와 포르테(피아노)의 작은 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문의 | 나노생명과학도서관 055-350-5212

### 갑자기 비가 올 때는, 도서관의 양심우산을 기억하세요!



급하게 비가 올 때 도서관에서 양심우산을 빌려쓰는 것은 어떨까? 도서관에서는 마이피누와 BN대선주조의 후원으로 7월부터 양심우산 100개를 배치하여 이용자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현재

제1도서관과 제2도서관에서 대여 가능한 양심우산은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 없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빌려 쓸 수 있으며, 일주일 이내에 해당 도서관으로 되돌려 주면 된다. 양심우산은 향후 상황에 따라 단과대학 또는 타건물에 까지 확대하여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사용 후 반드시 반납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문의 | 도서관 정보서비스팀 051-510-1308, 1800

#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세요.



## 1인 책 기증

작은 정성이 하나하나 모여 커다란 기쁨이 되듯,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 권의 책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꿈과 희망과 이상이 됩니다.

기증의사통보  
051-510-7600  
donation@pusan.ac.kr

‘자료기증신청서’ 작성  
‘도서관 홈페이지-자료기증’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방문  
(제1도서관 자료개발팀)



## 개인 소장자료 기증

교수님 또는 일반인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장서를 기증해주시면 도서관 학술정보를 축적하여 너만의 소중한 자료에서 모두의 자산으로 가꾸어 드립니다.

기증의사통보  
051-510-7600  
donation@pusan.ac.kr

‘자료기증신청서’ 작성  
‘도서관 홈페이지-자료기증’에서 다운로드

방문 기증  
또는 택배 송부



## 발간자료 기증

대학 내 기관(연구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도서관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대학 간행물로 등록하여 구성원 모두가 이용하고 국내·외 대학도서관간 상호 자료 교환으로 우리의 지식정보를 대외적으로 알립니다.

기증의사통보  
051-510-7600  
donation@pusan.ac.kr

도서관 방문  
(제1도서관 자료개발팀)

국내·외 기관과  
자료 교환